

변호사 4인, 재정투자심사 절차 위반 ‘제주~칭다오 손실보전금 협정’ 유권 해석 “협정 변경·파기 근거 안돼… 계약 유효”

“일방 파기 시 국제분쟁 소지”…중재센터 합의 필요
도, 협정 변경 추진 ‘난감’…보전금 추경 34억 편성

제주특별자치도가 막대한 협세 투입이 예상되는데도 사업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재정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와 위법하게 협정을 체결했지만 협정에 의한 둘 간의 계약 관계는 유효하다는 유권 해석 결과가 나왔다.

투자심사 절차 위반 문제가 제주~칭다오 협정을 변경하거나 파기할 법적 근거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협정 변경을 추진 중인 제주도는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농수축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중수 해양수산국장은 위법 논란이 불거진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에 대한 대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내부 검토 결과(칭다오 선사가) 운항한 것에 대한 손실보전금은(계속) 지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제주도가 의뢰해 얻은 변호사 자문 결과를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법제처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체결된 제주~칭다오 협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자, 이런 절차 위반이 협정을 변경하거나 파기할 법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 4명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제주도 입장에서 변호사들이 투자심사 패심으로 협정 자체도 위법해 무효라고 해석해야 오히려 부담

을 덜 수 있다. 중국 선사와 계약 조건 변경을 추진할 때 협정 위법을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고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는 부당하게 지출한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감액 당해 제주도로선 하루 빨리 손실보전금 지급을 중단해야 재정 패널티라도 감쌀 수 있다. 칭다오 협정은 2028년 10월 까지 유효하며, 제주도는 중국 선사가 화물 부족으로 손실을 보면 매달 그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유권해석에선 제주도의 바람과 달리 변호사 4명 모두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투자심사 절차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제주도에 국한되고, 또 계약 체결 과정이 행정적으로 위법하다고 해도 사인(민간)과 맺은 계약 관계까지 무효로 할만한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지금 단계에선 협정을 파기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정책 판단에 따라 파기는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어느 한쪽이 협정을 파기하려면 중재센터를 거쳐 양측 모두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결렬되면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협정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예산으로 34억원 을 제2회 추경안에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본예산에 편성된 손실보전금 지급 예산이 거의 바닥 난 상태”라며 “올해 말까지 지급하기 위해선 추가 재원이 필요해 추경에 모자란 비용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4년 체결된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은 선사 측이 손실을 보면 제주도가 3년간 최대 225억원을 보전하는 조건이다. 장래에 100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와 법제처 모두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도는 심사 없이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 지난해 10월 항로가 개설된 이래 올해 4월까지 제주도가 6개월간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48억원에 달한다. 이상민기자



만개한 황근나무 13일 서귀포시 성산을 오조리 성산일출봉 진입로 도로변에 황근나무 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여성긴급전화 상담 급증, 전년대비 2000건 넘어… 4면 / 대안교육 ‘곰샘학교’ 시설·교통편 열악… 5면

제주 최초

AI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AI 비즈니스 리더 양성 프로그램

AI

1급 자격 과정

10월 25일(토) 08:30~18:30

한라일보 본사3층 교육장

선착순 20명 (수강료 무료)

교육비 45만원 (교재, 수강료, 자료, 대외)

문의 및 접수 한라일보 총무부 064-750-2530

교육 대상: 인공지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필요하고 싶은 분

준비물: 노트북, 노트북용 이어폰, 구글 아이디와 패스워드, MS 파워포인트

교수진 소개

안종배, 심현수, 차경환

박성훈, 이기수

AI로 가능한 7대 비즈니스 혁신

교육 안내

수강생 특별 혜택

시간

세부 내용

제주기점 항공 노선 문제점 해소 방안 모색

20일 국회서 개선 토론회
국회의원·국토부 등 참석

제주기점 항공 노선 감소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립(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김성범(서귀포시) 국회의원과 제주 출신 부승찬(경기 용인시병)·조국현신당 정춘생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 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객수한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제주기점 항공 노선 감소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서며, 김연명 한서대 항공융합대학원장이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공교통 공공성 강화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제주 항공편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 대형 항공사 결합에 따른 시장 지배력 완화를 위한 저비용 항공사 슬롯 배분 등 여러 요인으로 좌석난을 겪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7월부터 항공사 착륙료를 면제해 증편을 권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가을 전설의 시작

제22회 2026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

2026.11.15 일 조천운동장 - 월정해안도로 방향 왕복 풀코스 | 하프코스 | 10km

푸른 바다와 제주 감귤의 청량함을 가득 품은 제주의 대표 마라톤 대축제! 달림이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안내

접수기간 2026년 7월 6일(월) ~ 9월 11일(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marathon.ihalla.com>

안내사항

참가비

입금계좌

참가자 선착순 모집 (9,000명)

문의 |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 사무국 T. (064)750-2291, 750-2543, 750-2540 E-mail : ljs1006@hallailbo.co.kr